

청와대 속 전통문화, 잼버리 대원들에 큰 인기

- 문체부, 잼버리 대원들 위해 특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마련해 제공
- 영국 대원들, 조기 퇴영 아쉬움 잊고 K-컬처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영국 대원 900명은 8일 오후 청와대를 단체 방문했다. 40명 단위로 팀을 구성한 참가자들은 청와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 등 건물과 특별전시회, 야외 공연 등을 관람했다.

영국 대원들은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일상을 소개한 ‘대통령 특별전’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각 부스마다 걸음을 멈추고 전직 대통령의 사진과 영문 해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대통령이 썼던 물건들 사진을 찍었다.

작년부터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지 않는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대원들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디 사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백악관 4배 크기의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에게 개방됐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청와대 방문 행사의 절정은 국립 정동극장 예술단의 공연이었다. 녹지원 앞에서 펼쳐진 판소리와 경고춤을 지켜보던 대원들은 하나 둘씩 공연자들의 몸짓과 소리에 빠져들며 함께 추임새를 넣고 춤을 추기도 했다. 대원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최선을 다해 공연하는 예술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대 대통령들의 삶이 깃든 K-컬처의 정수”라며 “조기 퇴영한 잼버리 대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을 최대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9일(수)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람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사진 6매 (청와대에서 국립 정동극장 예술단 공연 관람하는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담당 부서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2-3771-8631)
		담당자	서기관	박진석 (02-3771-864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